

불확실성 커지며 수출·소비 '흔들'... 하반기부터 회복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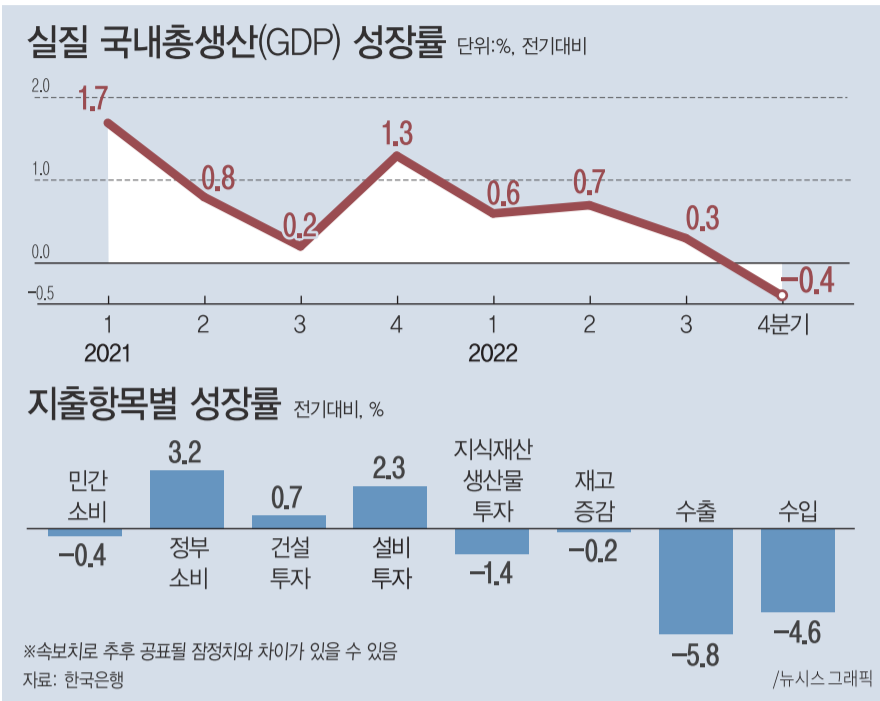
지난해 4분기 GDP -0.4%... 역성장 상반기에도 마이너스 지속 가능성
中 리오프닝 효과 등 하반기 반등 전망

지난해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2.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GDP는 -0.4%로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이달까지 반도체 등 주요수출 품목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춰왔을 때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얼마나 지어 따라 경제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수출·민간소비 무너지자 경제성장률 직격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0.6%, 2분기 0.7%, 3분기 0.3%, 4분기 -0.4%를 기록했다. 위태롭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수출부진에 민간



소비 약화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0.5%) 감소했던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이후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돼 2분기 2.9%, 3분기 1.7% 증가했다. 그러나 8월 이후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4분기 민간소비는 -0.4%로 하락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억눌려 있던 소비(웬트업)가

증가하면서 2~3분기 민간소비를 회복시켰지만 (4분기)조정을 받았다"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사수요가 줄면서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줄고, 10~11월 이례적으로 날씨가 따뜻해 의료 신발 등 재화 소비도 줄었다"고 말했다.

수출은 주력품목이 부진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11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선박은 182억달러로 20.8% 줄었다.

민간소비 약화와 수출부진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은 정부소비가 메웠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에서 4분기 3.2%로 증가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물가상승 부담 등으로 이어졌던 예산집행이 4분기에 이뤄지면서 물건비 지출이 높아졌고, 독감이 유행하면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소비가 증가하며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효과로 반등 기대

문제는 올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조정했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36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8.8%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소비가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

다. 지난해 국내총소득은 1분기 0.5%에서 2분기 -1.1%, 3분기 -1.3% 하락하다 4분기 1%로 회복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5%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도 3.9%로 상승하는 추세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은 우리경제가 올해 1%에도 못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ING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0.6%로 제시했고 노무라증권은 -0.6%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금융센터가 이달 초 주요 IB 9곳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평균 1.1%에 그쳤다.

한은은 경기침체 우려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황 국장은 "1분기는 가능하기 어렵지만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소비나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반도체 과잉공급 부분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추경호 "3주택자 보유자 종부세 완화, 1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할 것"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등 밝혀 "하반기 갈수록 경제회복 빨라질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포함 공익성의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2.7%로 낮추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가 어렵다면 1분기에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등을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이

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 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 0.5~2.7%를 적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SH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실수요자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이전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플러스 성장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중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와 연구개발(R&D) 등의 목적으로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지원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올해 GDP 성장률 1.7% 추정... 기준금리, 현재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 될 것"

자본시장연구원 "누적된 금리인상 효과 지켜봐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하고, 기준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원은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밝혔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상반기에는 민간 소비의 모멘텀 축소,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경기 둔

화 정도가 다소 클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 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다만,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는 3.4% 상승해 전년보다 오름세가 둔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가격 인상 등 기존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되면서 4.2%의 상승률을 나타내다 오름세가 진정되며 하반기 상승률은 2.6%로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인 3.5%에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봤다.

백인석 거시금융실장은 "기준금리가 수요둔화를 유발하는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돼 누적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단, 대내외 금리 인상 경로, 국내 실물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본원은 올해 거시경제 주요 이슈로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 기대의 괴리 ▲글로벌 물가 불확실성 및 고금리 지속

가능성 ▲국내 가계 및 기업부채 위험 ▲부동산시장 위축 지속 등을 꼽았다.

백 실장은 "미국 경기 둔화 심화, 중국 경제 정상화 지연, 지정학적 갈등 심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등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리스크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해 금융시



26일 여의도 금투센터 볼스홀에서 열린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원 거시금융실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백미경 기자

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취약 가계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미경 기자 mikyung96@